

2024년 10월 28일 (월)

경남신문 > 사람 마당

# 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24-02-20 08:04:39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해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ha당 최대 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가입 상한 연령도 기존에 만 74세에서 만 79세로 늘어났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다.

고비롱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고비롱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쥐젖' 뜯지말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40세 이상의 남성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



오돌토돌 '모공각화증' 이제야 알게된 진실(+해결방법)

